



# ESAN법칙을 아십니까?

오재호/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, KBS-2R "밤을 잊은 그대에게" MC

**지** 난 4월에 있었던 황혼이혼 사건입니다. 두 분은 47년을 줄기차게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. 이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할머니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"저 영감쟁이는 평생을 청개구리같이 산 사람입니다. 지긋지긋해서 더는 입에도 올리기 싫습니다. 영감쟁이가 한 일을 날날이 말하려면 석 달 열흘가지고도 모자랍니다. 난 죽어도 못삽니다. 당장 이혼도장 받아주세요."

할머니의 주장이 워낙 강경해서 이혼은 성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

무려 47년을 살아온 부부도 별수 없이 'ESAN법칙'에 희생되는 현장입니다.

'ESAN법칙'이란 이렇습니다.

어느 가정에 모두(Everybody)가 그 일을 해야만 될 일이 있었습니다. 또 그 일을 누군가(Somebody)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.

게다가 그 일은 아무나(Anybody)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도(Nobody)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.

"모두", "누군가", "아무나", "아무도"의 첫 글자만 따서 'ESAN법칙'이라고 하는데 혼인생활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함정의 약자이기도 합니다.

가령 화분을 창문 곁으로 옮겨놔야 할 일이 있다고 합시다.

그 일은 남편이나 아내를 가릴 것 없이 "모두"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. 또 어차피 남편이나 아내를 가릴 것 없이 "누군가"가 해야만 될 일이기도 했습니다. 게다가 그 일은 "아무나"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"아무도"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. 사실 이런 현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풀

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서로에게 크고 작은 "희생"을 하면서 살아갑니다.

또 희생은 부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. 더욱이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승봉을 떠다 바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승봉을 받아먹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생활 패턴입니다.

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,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바친다는 그 희생들은 어느 순간에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변해 상대 배우자에게 엄청난 "기대"를 지니게 됩니다.

그 기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"권리"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

따라서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배우자를 "공격"하면서 자신의 공격을 합리화시킵니다. 불행은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. 나는 항상 옳고 당신은 항상 잘못하고 있습니다. 나는 그 일을 했는데 당신은 그 일을 나한테 강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. 부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.

사실 부부가 서로에게 희생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희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.

그것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"기대"란 것이 "희생"이라는 가면을 썼을 뿐입니다.

사랑은 그냥 주기만 할뿐입니다.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.

배우자에게 "서운함"을 느끼는 것은 좋지만 기대를 갖는 것은 큰 손해를 볼 공산이 큼니다.

"기대"란 대단히 무서운 해독을 끼칩니다.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"기대란 배우자를 서서히 죽이는 살인행위다"라고 말합니다.

